

신인섭의 광고·홍보 History

Bye-Bye Russia!

다국적 기업 300개사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

글 신인섭 |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
1929insshin@naver.com



Yale 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연구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이후 두 주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사업 전부 혹은 일부를 철수한 기업 300개사의 이름을 발표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기업 39개사의 이름도 있다. 영어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고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전자의 이름도 나와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며 서울에도 나와 있는 회사도 많은데 그 일부를 임의로 업종별로 적은 것이 아래 표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된 맥도날드와 같은 식품 사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3월 8일 맥도날드는 러시아의 식당 문을 일시적으로 닫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에 진출한 지 31여년 만에 러시아 내 847개 식당이 폐점하게 된 것이다. 회사 전체 수입면에서는 9%를 잃게 됐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와 커뮤니티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6만 2천명의 러시아 사원 그리고 이 밖에도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문제이다. 한때 맥도날드 사장이던 프레드 터너(Fred Turner)는 네개의 낱말로 구성된 유명한 말을 남긴바 있다. “올바르게 일하세요(Do the right thing)” 이제



- 1 Over 300 Companies Have Withdrawn from Russia - But Some Remain 헤드라인(출처 : <https://som.yale.edu/>)
- 2 McDonald's to temporarily close Russian restaurants 헤드라인(출처 : <https://adage.com/>)

| 표 | 러시아를 전부/일부 떠난 다국적 기업

업종	기업 이름
개인 용품	Procter & Gamble, Kimberly-Clark
소셜미디어, 테크, 통신	Alphabet(Google), Apple, Meta(Facebook), Netflix, Samsung, Twitter, TikTok, Youtube, Microsoft
식품·음료	CocaCola, Pepsi, Kellogg, McDonald's, Nestle, Starbucks
신용카드	American Express, Master Card, VISA
자동차	Ford, GM, Honda, Hyundai, Mazda, Mercedes-Benz, Nissan, Renault, Toyota, Volvo, VW
항공속달	DHL, Fedex, UPS
항공사	American Airline, British Airways, Korean Air, United Airlines
화장품	CHANEL, ESTEE LAUDER, L'OREAL
기타	Amazon, Nike, Panasonic, Philip Morris, Rolex, Siemens, Uniqlo

*자료 : Yale School of Management. Over 300 Companies Have Withdrawn from Russia but Some Remain 2022.3.14. 현재



2



3

2 1990년 1월 31일 모스크바 맥도날드 식당이 문을 열었다.(자료 : CNN Business)

3 모스크바의 맥도날드 간판(자료 : Bloomberg)

회사의 이념이 된 이 말은 수십년간 세계 도처에서 갖가지 상황(풍파)을 겪으면서 터득한 결과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회사의 다섯 가지 가치관의 하나가 된 이 이념인 '올바르게'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러시아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이념에 따라 열심히 일해 온 사원 62,000명의 봉급은 계속 지불한다는 회사 이사회 의 결정이 있었다.

CNN이 찍은 흐릿한 사진이 있다. 1990년 1월 31일 강추위 속에 모스크바 푸슈킨 광장에 그 무렵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맥도날드 식당이 문을 열었다. 끝이 안 보일만큼 긴 줄이 식당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 밑에는 망치와 낫의 소련 국기가 나부끼던 시절이었다. 32년 전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의 첫 맥도날드 식당이 제공한 것은 미국 햄버거만이 아니었다. 27,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630명을 골라 한 달 동안 교육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는 자본주의(민주주의)의 얼굴이었다.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책

Advertising Age가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 얻은 결론은 다음 네 가지였다.

①어떤 기업이나 조직 할 것 없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공은 기업과 조직의 코트로 넘어 왔다. 시기를 놓치면 회사의 태도를 밝힐 수도 없게 되고, 왜 태도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받을 것이다. 잊어서 안 될 것은 소비자는 기업이나 조직이 언제 무엇을 했는가를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기업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장래의 선례가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국민, 소비자는 기업이나 조직의 태도를 보고 있다.

②강건너 불 보듯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 광고주협

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0개 회원사 가운데 23%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겨우 25%만이 러시아에서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비를 줄였다. 협회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지원하도록 역설했다. 기업이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이다.

③마케팅 책임자는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을 때에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모든 사원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책임이 영업담당 임원에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발표와 행동은 기록이 되어 역사로 남는다.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이 현재라는 것이다.

④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다.

작년 한국은 유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 자리에 올랐다. UNCTAD 창설 이후 58년만에 처음이다. 32개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에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만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Bye-Bye Russia!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평양이 그리 멀지 않은 선진국 한국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㉞



신인식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세대 광고인으로 국내 광고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기여했다. 은퇴 후 20여 년간 다수의 논문·저서 집필과 광고계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